

미래

3년 연속 9%대의 경제성장과 30%대의 수출증가 유무에 관심 고조

2006년도 중국 경제 전망 및 한국기업들의 투자전략

2006년에는 특히 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을 추진예정인 중국은 외자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전가격조사, 인민폐 외채 관리 강화를 통해 외자 기업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외자유입 체제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 현지의 한국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의 수출지향형 생산구조를 내수시장 진출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 수출제품의 첨단화를 추진해야 한다.

편집자 주

2006년 중국 경제 전망

1. 2006년, 공급과잉 속에 8%대로 성장세 둔화 예상

2006년 중국경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적정 성장과 저물가의 안정된 국면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은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4년만에 8%대의 안정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와 Global Insight사가 내년도 GDP 성장률을 각각 8.2%와 8.5%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 역시 8.5%를 잠정 목표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공급능력 과잉으로 2%대의 안정된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며, 최근 과열현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정자산투자는 정부의 강력한 억제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될

표 1.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치

항목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1~9월	전년	
GDP 성장률	%	8.0	9.1	9.5	9.4	9.2	8.5
소비자 물가	%	-0.8	1.2	3.9	2.3	2.3	2.5
고정자산투자	%	16.4	26.7	25.8	25.4	23.0	20.0
소비증가율	%	11.8	9.1	13.3	13.0	13.0	15.0
수출	억달러	3,256	4,834	5,934	6,865	7,595	8,582
수입	억달러	2,952	4,128	5,614	5,957	6,624	7,750
무역수지 흑자	억달러	304	255	320	908	971	832
FDI 유입액	억달러	527	535	606	432	597	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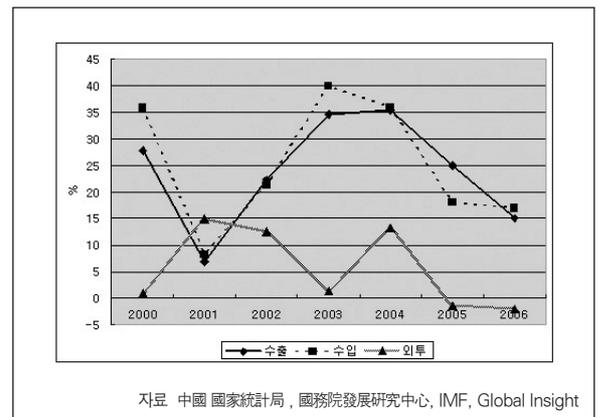
자료: 中國 國家統計局, 國務院發展研究中心, IMF, Global Insight
 주: *2005년 1~9월은 실적치, 수출입은 11월말 기준, 2005년 전체와 2006년은 전망치

전망이다.

한편, 소비수요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에 힘입어 금년보다 2% 포인트 높아진 15%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도 제조업 성장률은 15%대로 둔화될 전망이며, 특히 에너지·소재산업의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2. 위안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전망

2005년 11월말까지 수출액은 6,865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9.7% 증가), 수입은 5,957억 달러(전년동기비 17.1%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 폭이 2004년의 3배인 908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6년에는 수출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로는 전년도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사상 최초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중국 수출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외자기업들의 수출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년도 대미 무역흑자는 위안화 환율 절상과 통상마찰로 이어져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Global Insight사는 올해 위안화 절상 폭을 5%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도 위안화 환율결정에 대한 시장 유연성을 강조하며, 올해도 중국 수출증가율은 13%, 수입 증가율은 16% 정도로 예상되며 전체 교역규모는 1조 6,300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中國 國家統計局, 國務院發展研究中心, IMF, Global Insight

그림 1. 중국 수출, 수입,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 추이(2000~2006)

3. 중국정부, 11·5 계획에 바탕을 둔 '2006 경제정책' 발표

중국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중점 추진 사항으로 다음의 8개항을 선정했다. 즉 ▶안정적 재정, 금융정책 ▶소비는 장려하되, 투자 억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균형 발전 ▶자원절약적, 친환경적 산업 장려 ▶개혁정책의 심화와 개방정책의 확대 ▶과기교육과 위생 강화 ▶조화로운 사회 건설과 민생애로 해소

4. 수출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지향

중국정부는 2006년에 성장 동력을 수출위주에서 수출과 내수 쌍두마차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투자와 수출 감소에 대비하여 중소

신년기획



형 주택과 소형자동차를 중심으로 소비를 크게 늘려나갈 방침이며, 소비촉진을 위해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등소평(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에 따라 추진되었던 성장일변도 정책이 호금도(胡錦濤)의 '이인위분(以人爲本)' 이론에 따라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중시될 전망이다.

5. 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추진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첨단제조업과 소재산업 등 기간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시장지향적 산학연 기술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센터를 적극 유치 하여 세계연구개발센터로 부상하는 것. 산업고도화의 전략의 특징은 전통제조업과 첨단제조업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공업화의 길(新型工業化道路)'을 모색하는 것이다. 반도체, 항공기 제조와 생명공학,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부여한다.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경쟁력 제고와 공동부유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11·5 계획에서 장강삼각주(상해), 북경·천진 지역, 성도·중경(成京) 지역, 동북3성 지역을 4대 핵심지역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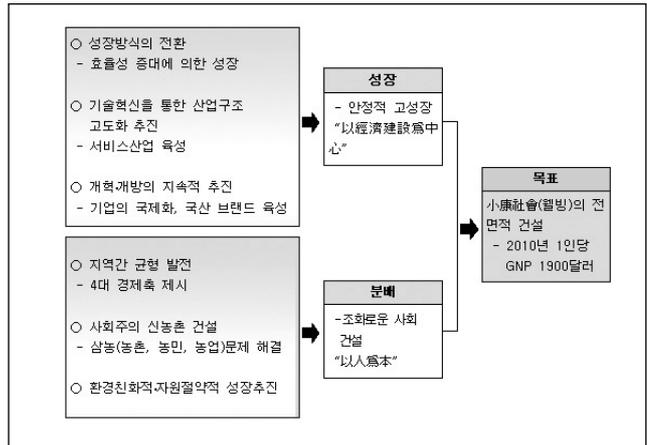


그림 2. 중국 11·5 계획 목표와 주요 정책

6.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와 국내의 기업간 차별화 축소

외자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전가격조사, 인민폐 외채 관리 강화를 통해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외자유입 체제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한다. 외자우대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되, WTO 체제에 입각해 국내외 기업의 차별화를 축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전략

1. 중국의 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내수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통상마찰 확대 및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수출은 둔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제품의 원부자재용으로 수출되는 우리 제품의 대 중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제품 수출의 70% 이상이 중국 수출용 원부자재이다.)

중국의 성장정책기조 전환에 부응하여 국내기업들은 중국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중국의 내수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미 중국에는 연간소득 5,000 달러 이상(구매력으로 계산하면 최소 1만달러 이상)인 인구가 1억 5,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급가전, 명품 등 고급소비재에 대한 판매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정부가 장려하려고하는 중소형 주택, 소형 승용차와 고급 가전을 비롯하여 내구 소비재 등과 관련된 고급 건축원부자재, 자동차 부품, 산업용 전자 부품 등에 대한 수입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현지 우리 투자기업들도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의 수출지향형 생산구조를 내수시장 진출형으로 전환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2.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있어

올해도 중국경제는 내수와 분배 중시로의 정책 방향 전환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창출과 외환보유고의 급증으로 인한 위안화 절상 등을 비롯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경제의 급격한 정책, 경기 변화나 위안화 절상 등 차이나 리스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상시점검체제와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민간 합동으로 운용중인 중국경제모니터링 시스템 사업(www.china.go.kr)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3. 글로벌 전략의 중심축인 중국시장에서의 사업경쟁력 강화 필요

향후 세계 제조공장에서 연구개발센터로까지 발전이 예상되는 중국시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전략의 중심축인 중국시장에서 사업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첨단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내 주력산업과의 경합이 치열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저부가가치의 범용제품 제조에서 벗어나 일부 프리미엄 제품과 응용 R&D 영역으로 진입할 태세를 보이면서 한국과 사업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점점 커질 수 있으므로 한국은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R&D와 글로벌 경영역량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산업은 전통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접목을 통해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며 디자인, 품질 등에서 중국 제품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중 수출제품의 첨단화를 추진해야 한다. 산업전자부품, 특수 소재, 핵심 부품과 설비 및 정밀기기 등 중국이 단기간 내에 국산화하기 어려운 부품들에 대한 수입수요가 당분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짚막뉴스

2005년 수출 12.2% 증가한 2,847억 달러, 3년 연속 두자릿수 성장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2,847억 달러, 수입 2,612억 달러로 23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며 수출입 모두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규모 역시 5,459억달러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5,000억달러를 넘어섰다.

1월 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05년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847억 달러로 전년보다 12.2% 증가했고 수입액은 2,611억5,000만 달러로 16.3% 늘어났다. 무역수지 흑자는 235억5,000만 달러에 달해 전년의 293억8,000만 달러보다 줄었으나 2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율은 2003년의 19.3%, 2004년의 31%에 이어 2005년에도 10%를 넘어 무역규모 1,000억 달러를 달성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무역규모는 2004년 4,000억 달러를 넘은 지 1년 만에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선박·철강 등 대부분의 품목이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달성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의 수출비중이 전년의 17.6%에서 18.6%로, 중국의 비중이 19.6%에서 21.9%로 높아진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비중은 16.9%에서 14.5%로 낮아졌다.

한편, 2005년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1.2% 증가한 258억 달러, 수입은 15.6% 늘어난 242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15억7,00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